본래심으로 사는 게 선

<禪>

物)'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대신, '불성상청정(佛性常淸淨: 우리의 본마음은 항상 청정하다)'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소소영영한 그 자리가 한없이 밝게 늘 존재한다고 보면 상견(常見)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소영영한 자리를 반조해 보면 깜깜하여 공적한 자리입니다. 체(體)로 보면 공적(空寂)하지만, 용(用)으로 보면 영지(靈知: 신령스런 지혜작용)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서 불성자리를 '청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사어록을 쉽게 단정 지으며 1600여 년의 불교사를 부정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공적'과 '영지'는 체와 용으로서 원융무애한 불이(不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으로서의 자리를 쌍차쌍조(雙遮雙照: 동시에 부정하고 동시에 긍정함)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광 스님의 명쾌한 설명이 이어지자 질문자를 비롯한 대중은 그동안 막혔던 의문이 한꺼번에 해소된 듯한 표정이 역력하다. 스님은 1시간을 훌쩍 넘긴 즉석 법회를 마감하며 육조 스님의 법문 그대로 생활선을 이어가라고 당부한다.

"육조 스님은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자청정(本自淸淨)하니 단용차심(但用此心)하면 직료성불(直了成佛)하리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의 자성은 본래 항상 청정하니 이 마음(참마음)으로 살면 곧 바로 성불해 마친다고 한 것입니다. 이 한 마디 속에 불교의 대의와 수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랜 세월 선교쌍수(禪敎雙修)의 공부와 더불어 칠불사 복원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해 후학의 사표가 되고 있는 통광 스님. 스님의 진실하고도 간곡한 법문에 감사 인사를 올린 일행은 점심공양을 마친 후 상좌 자응 스님이 선농일치 수행 중인 자혜정사를 방문해 차담을 나눴다. 일행은 이어 쌍계사 건너편 찻집으로 내려가 회향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번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각자 갈 길은 멀지만, 저마다 지고 다녔던 짐들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은 듯 승용차의 시동소리 조차 가볍기만 하다. 도반들은 이날 얻은 양식으로 다시 삶의 현장에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쓰는 지혜작용을 마음껏 펼칠 것이다.

글 · 사진=김성우(작가 · 본지 논설위원)

통광 스님은 ...

1940년 지리산 칠불사 인근 의신마을에서 출생한 스님은 범어사에서 여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59년 명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방 선원과 강원에서 선교를 함께 닦았으며, 월정사 탄허 스님 문하에서 경학을 공부해 1977년 탄허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아 경허 – 한암 – 탄허의 강맥을 이었다. 폐허가 된 칠불사를 1978년부터 복원했으며, 쌍계사 주지와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 칠불사 회주 겸 쌍계사 강주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역서로 <고봉화상선요> <초의다선집> 등이 있다.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왕이 되고자 했던 승려 도쿄(道鏡)

한국에 신돈이 있다면 일본에는 도쿄(道鏡, ?~772)가 있다. 불교가 권력의 힘을 탔을 때는 어느 나라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기 마련인가 보다. 더욱이 도쿄는 신돈보다도 600년 전에 일본의 왕이 되고자 꿈을 꾸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 전말은 이렇다.

나라(奈良)시대 말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태자로서 왕이 되었던 코켄(孝謙)상왕은 한 승려를 총애하기 시작했다. 쥰닌(淳仁)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 힘들었던 심신을 치료한 간병선사 도쿄였다. 간병선사는 주력과 탕약만으로 왕의 치료를 전담하는 승려들을 말한다. 도쿄는 주로 점성술과 관계가 있는 숙요(宿曜)비법을 통해 치료의 효험을 보았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설에서 보듯 더욱 밀접해졌다는데 그 진위는 명확하지 않다.

도쿄는 유게씨(弓削氏)로 조상이 활을 만드는 대륙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법상종의 기엔(義淵)과 화엄종의 료벤(良弁)에게 수학하고, 영산으로 알려진 나라의 카츠라기산(葛城山)에서 밀교계통의 수행법인 여의륜법을 수련했다. 도쿄는 산림수행을 통해 영험을 얻었다. 당시 지계청정한 승려를 배출하는 데는 산림수행이 중시되었는데, 쥰닌왕은 산림에 운둔하여 청정한 수행을 10년 이상 한 자에게는 득도시키라고 명하고 있을 정도였다.

나라현과 오사카부 사이에 있는 표고 960m의 카츠라기산(葛城山)의 일부. 고대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많은 산림수행자가 모여들었다.

어육류 공물 금지 등 불교 국정 전면에 내세워

도쿄의 기세는 날로 높아져 서서히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다. 쥰닌왕의 왕위계승을 지원한 당시의 권력자 후지와라노 나카마로(藤原仲麻呂)와 대립하기까지 했다. 나카마로는 코켄상왕 및 도쿄와의 사이가 악화되자 764년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참살을 당했다. 도쿄는 바로 대신(大臣) 선사의 지위에 올랐다. 쥰닌왕을 폐한 상왕은 다시 왕위에 올라 쇼토쿠(稱德)왕이 되고, 이듬해 도쿄를 태정대신(太政大臣) 선사에 임명했다. 태정대신은 행정 최고기관의 장을 말한다. 요즈음으로 치면 국무총리인 셈이다. 심지어는 도쿄의 동생 키요히토(淸人)에게는 서쪽의 정부라고 일컫는 후쿠오카현의 다자이후(太宰府)의 장관직이 맡겨졌다.

이 시기 도쿄는 모든 정책에 불교를 우위에 두었다. 방응사(放鷹司)를 폐지하고 방생사(放生司)를 두어 매나 개를 길러 수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조류를 산과 들에 풀어 주었다. 비록 불국사 석가탑의 것보다 제작년도가 몇 십 년 늦지만 목판과 동판인쇄의 <무구정광다라니경>을 넣은 삼중목제의 100만 소탑을 만들어 당시의 10대 사찰에 10만기씩 봉헌했다. 현재 호류지(法隆寺)에는 원형에 가까운 300기 정도가 남아 있다. 소위 불교정치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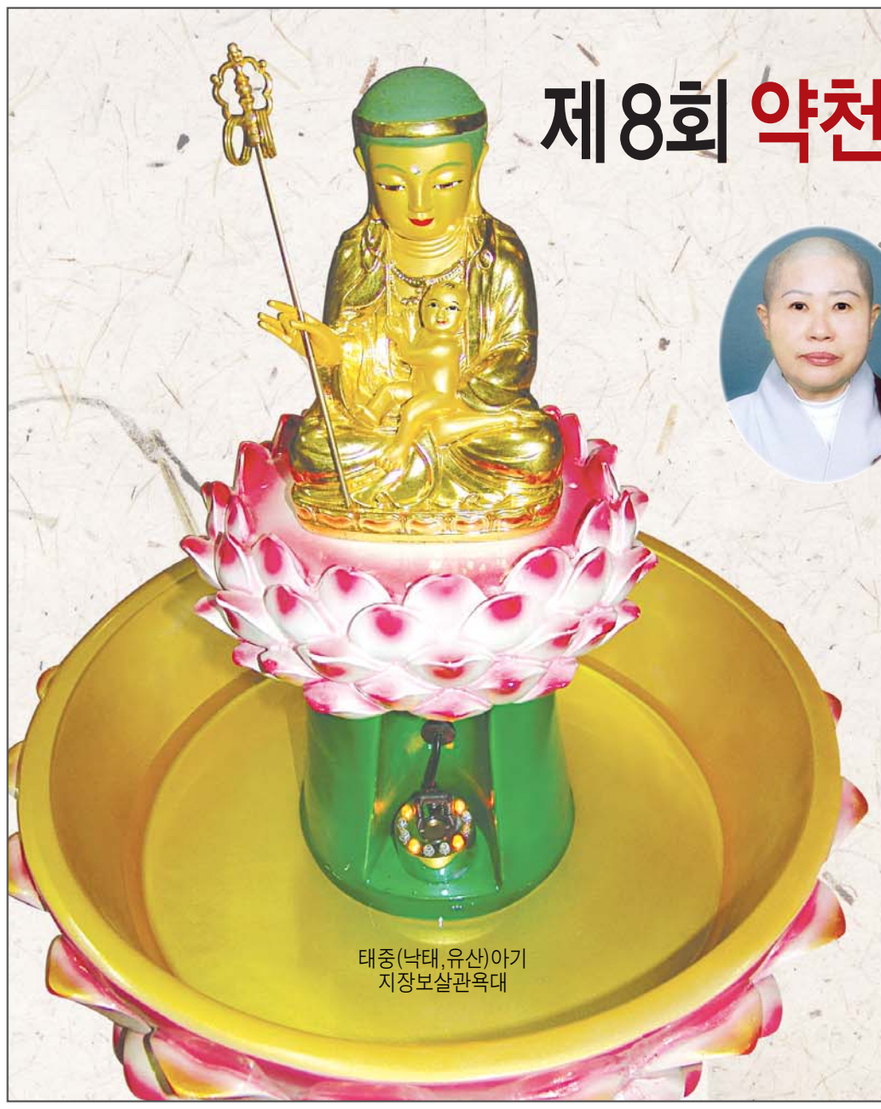
766년, 그의 수하 승려 키신(基眞)이 나라의 스미데라(隅寺)에 안치된 비사문천상(毘沙門天像)의 태내에서 휘황찬란한 불사리가 나왔다고 한 것을 들은 여왕은 도쿄의 선정이 뛰어난 덕분이라고 고무되어 도쿄를 법왕에 임명했다. 왕에 준하는 지위에 오른 것이다.

3년 뒤인 769년 드디어, "도쿄를 왕위에 올리면 천하는 태평하게 되리라"고 하는 신탁이 왕실의 조상신 하치만신(八幡神)을 모시는 우사(宇佐)의 하치만궁 신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사는 큐슈의 다자이후와 그리 멀지 않은 오이타현 북부를 말한다. 이를 반신반의한 쇼토쿠왕의 꿈 속에 하치만신의 사자가 나타나 "왕의 측근인 비구니승려 호킨(法均)에게 바른 신탁을 전하겠다"고 했다. 일어나 호킨에게 다녀오게 했지만 몸이 약해 그의 동생 와케노 키요마로가 대신 갔다. 하치만궁 신사에 가서 신탁을 요청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차 신에게 묻자, "무도한 사람은 배제하라. 왕위 계승은 왕족이 하라"는 신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받은 여왕과 도쿄는 오히려 대노하고 호킨과 키요마로를 귀양보냈다.

그러나 권력의 좌도 잠시, 자신을 총애했던 여왕이 이듬해 죽자 도쿄는 즉시 관동의 토치기현에 있는 야쿠시지(藥師寺)로 좌천되고 2년 뒤 서민의 신분으로 여왕을 따라갔다. 키요마로는 왕통을 지킨 충신으로 평가되어 중용되고, 후에 쿄토(京都) 천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신탁은 도쿄의 동생이 다자이후에서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불사리 건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 도쿄와 최고 권력자 여왕과의 관계는 기발한 상상력이 증폭된 소설의 주제로 현대에 와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원영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